

순천시, 30일 ‘스카이큐브 사태’ 시민 토론회

허석 시장 직접 진행...운영사 적자 보상 놓고 의견 수렴
시 “포스코의 일방적 계약 해지 대기업 갑질” 대응책 마련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스카이큐브(무인궤도차) 운영사의 보상 청구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30일 오후 2시 조곡동 장대공원 공영장에서 ‘포스코 횡포! 순천시민 그 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시민 광장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코의 자회사가 순천만

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적자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1000억원대의 보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순천시는 이번 사태의 경과와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허석 시장이 직접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다 적자가 나

자 지난달 순천시에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순천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운영 중단에 책임이 있다며 최근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에코트랜스는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를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대기업 갑질이며 횡포라고 규정했다.

순천시 또 에코트랜스의 중재 요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대응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스코가 일방적인 계약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민 1세대당 130만원 상당의 부담이 되는 금액을 보상하라는 것은 거대기업의 갑질이고 횡포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스카이큐브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향후 대책에 대한 허심탄화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구례실버축구단’ 창단...영호남 친선대회도

구례군을 연고로 한 ‘구례실버축구단’이 공식 창단했다.<사진>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구례에 주소를 두거나 본적을 둔 만 57세 이상 남성 42명으로 ‘구례실버축구단’을 구성했다. 축구단 단장은 이봉훈(광남건설 대표) 씨, 회장은 이창열 씨가 각각 선임됐다.
구례군은 실버 축구단 창단을 기념하고 축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4일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영·호남초청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영·호남초청 친선경기에는 구례와 순천, 거제와 사천 등 4개 시군의 실버축구단이 참가했다.
구례실버축구단, 순천실버축구단, 거제 60 FC, 사천 60 FC는 각각 팀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팀별 2경기씩 풀리그를 통해 승부를 겨루며 실버 축구 활성화와 선수 간 친목을 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창군,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고창군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안전확보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사업은 안전관리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석축·옹벽 등의 보수·보강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공용시설물관리 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세일글

“청렴문화 선도하는 조직 만들 것”

윤석균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윤석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사업단이 되자”고 강조했다.
윤 사업단장은 또 “사업단 기능을 재정립하고 영산강 3·4 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최선을

을 다해 항구적인 가뭄극복과 시설물 개선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문학 전공 공학박사인 윤 사업단장은 1986년에 입사해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본사 사업계획처장, 전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지난 26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동 삼산의원’을 이전·복원한 ‘익산근대역사관’ 개관식이 열렸다.

익산 옛 삼산의원 복원 근대역사관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김병수 선생 1922년 개원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지난 26일 익산시 중앙동 옛 삼산의원(등록문화재 제180호)을 이전 복원에 근대역사관으로 개관했다.
옛 삼산의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김병수 선생이 1922년 개원했다.

아치형 입구와 벽면에 수평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니스 장식 등 근대 초기건축물 특징을 지녔다.
건물은 1945년 해방 후 한국무진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 6월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

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시는 건물을 기증받아 원형을 복원하고 근대역사관(연면적 289.3㎡)으로 꾸몄다.
근대역사관 1층은 상설전시실, 2층은 기획전시실 및 교육실로 구성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근·현대 자료 및 유물을 확보하고 인근 근대 건축물과 연계해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에 ‘짬뽕 특화거리’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

음식점 10곳 조성 관광자원화

군산시가 ‘짬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군산 짬뽕’을 특화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총사업비는 15억원(국비·시비 50%)이 투입된다.
짬뽕 거리는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 동령길과 장미길 등으로 선정하고, 입점할 10개소 음식점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소재한 관련 요리 운영 영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영업자다.
신청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입점 영업소 간판정비 지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지원 ▲특화거리 영업소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에향운동본부, 정읍 천변 환경정화 활동

정읍시에향운동본부(이사장 이한옥·이하 애향운동본부)가 지난 26일 정읍 천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사진>
이 날 행사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정읍천변과 벚꽃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9 정읍 벚꽃축제’를 앞두고 진행됐다.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읍의 벚꽃과 축제를 통해 즐거운 봄의 추억을 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이사장을 비롯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정읍천변 일원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

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한옥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은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열리는 벚꽃축제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정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애향운동본부는 2019 벚꽃 축제 기간에 1000여명의 출향인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정읍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